

## 제1절 개항기(1876-1910)의 울진의 민중 동향과 의병운동

### 1. 민중의 성장과 ‘울진·영덕동학농민운동’

19세기 중엽 조선은 대내·외적 정세변화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내적으로는 농민층에 의한 반봉건 농민항쟁이 폭발하면서 중세 봉건체제가 급속하게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구미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이 가속화되면서 제국주의 침략의 위기에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개혁을 통한 반봉건(反封建) 근대국가의 건설과 자주국방에 의한 반제국(反帝國) 자주 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대원군 정권의 한계로 달성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병란’이나 ‘민란’ 형태의 민중항쟁은 지속되었고,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원군 정권은 1862년의 임술(壬戌)농민항쟁을 사회적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대원군은 세도 정권으로 인해 파탄의 위기에 처한 왕조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왕권의 상징으로 경복궁을 중건하고, 안동김씨를 중심으로 한 노론세력의 약화와 중앙정치 및 권력 구조의 개편을 도모했다. 동시에 체제의 위기를 가져온 민중항쟁을 수습하기 위해 삼정을 개혁하고, 무단토호에 대한 징치와 서원철폐를 단행하여 농민침탈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원군의 정책들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왕권 강화를 통한 중세적 왕조체제의 유지에 머물러 그 한계를 드러냈다.<sup>390</sup> 그 결과 대원군 정권 초기부터 재발된 농민항쟁은 지속되었고, 국민적 지지를 받던 대외정책의 한계와 맞물리면서 농민들은 조직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식은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성장했다.

이 시기 민중항쟁은 일반적으로는 ‘민란(民亂)’의 형태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작변(作變)’, ‘변란(變亂)’ 등의 ‘병란(兵亂)’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울진 지역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농업발달과 농민층 분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삼정문란 등으로 인한 농민몰락과 생활 피해는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양세력의 침투와 맞물리면서 풍수지리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감록”<sup>391</sup>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현실을 부정하는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민중들에게로 확산되었다.<sup>392</sup> 그 결과 백성들은 병란과 재해가 발생을 염려하였고, 그들이 주장에 동조하여 난국을 피하기 위해 ‘십승지(十勝地)’에 들어가야 한다

390. 대원군 정권의 개혁정치와 내용·정치변동 관계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金炳佑, 2006, 『大院君의 統治政策』, 도서출판 혜안; 연갑수, 2008, 『고종대 정치변동연구』, 일지사

391. 정감록은 우윤, 1988, 「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 『역사비평』2, 한국역사연구회; 이종필, 2019, 『鄭鑑錄』과 조선 후기 하위주체들의 저항적 연대』 『우리문학연구』62, 우리문학회; 정진혁, 2019, 「18세기 말 정부의 ‘정감록 참위설’ 인식과 대응책」 『역사와현실』111, 한국역사연구회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392. 김도형, 2017, 『민족과 지역』 근대 개혁기의 대구·경북, 지식산업사, 256~258쪽

고 믿었다. 십승지는 일종의 피난처로 민중이 중심이 되는 이상사회를 의미하였기에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 백성들은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울진 지역은 일찍이 대풍수가 남사고(南師古)의 영향으로<sup>393</sup> 지역민들은 이러한 풍수지리사상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

이러한 민중의식의 변화에 최제우의 동학(東學)과 그 사상도 한몫했다. 동학은 서양세력의 침략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새로운 사회로의 개벽(開闢)을 주장하면서 별도의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바로 지상의 천국임을 강조했다.<sup>394</sup> 이러한 동학은 억압을 받으면서 현실에 불만을 가진 민중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농민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처지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농민들은 그동안 정권의 폭정과 탐관오리의 수탈, 지방의 수령과 이서층의 부정과 불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을 믿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민중의 입장에서는 동학은 희망의 불빛이었다.<sup>395</sup> 울진의 평해 지역과 인접한 영양·영덕 지역에는 접주(接主)가 임명되어 활동했고, 울진 지역에서도 교도들이 늘어났다.

울진 지역의 동학은 1863년(철종 14) 최제우(崔濟愚)가 체포된 이후 최시형(崔時亨)이 조직을 확장할 때 본격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교세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제우의 옥바라지를 경북 북부 지역의 출신들이 전면에 나설 때, 울진 지역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교인이 급속도로 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울진접과 평해접이 힘을 합쳐 350금을 냈다<sup>396</sup>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제우 처형 이후 경북 북부 지역의 동학 조직이 재건될 때 울진 지역의 동학교도들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하에서 현실에 불만을 가진 몰락 양반 이필제(李弼濟)가 영해에서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 19세기 민중 변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이필제의 난에 울진 지역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필제는 1869년(고종 6)부터 진천과 진주에서 작별을 기도했고, 1871년(고종 8)에는 영해에서 군사를 불러 모아 병란(兵亂)적 성격을 지닌 변란(變亂)을 일으켰다.<sup>397</sup> 그는 스스로 나라를 위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제세안민(濟世安民)’을 내세워 농민들을 조직에 흡수했다. 서양 침략설을 퍼트려 백성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었고 거의(舉義)의 명분으로 삼았다. 또한, 『정감록』을 전면에 내세워 변란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교주의 신원운동이 더해지면서 동학교도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특히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이 가담하면서 동학교인의 참가가 확산되었다.

393. 김두규, 2000, 『조선풍수학인의 생애와 논쟁』, 공리 ; 남지심, 2017, 『격암 남사고』·별에서 온 조선의 위대한 예언자, 울진군 ; 박상현, 2017, 「조선 후기 ‘예언가 남사고’의 탄생과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방사와지방문화』20, 역사문화학회

394. 조극훈, 2017, 「동학·천도교의 개벽사상과 인내천 사상」 『동학학보』42, 동학학회 ; 최천집, 2017, 「동학 이상세계의 사상적 기반」 『동학학보』42, 동학학회

395. 김도형, 2017, 앞 책, 258~259쪽

396. 박맹수, 1988, 「동학의 교단조직과 지도체제의 변천」 『1894년 농민전쟁연구』3, 한국역사연구회

397. 김도형, 2017, 앞 책, 262~268쪽

이필제 난은 동학교도들이 주동했다. 동학교도인 강사원(姜士元)·김진균(金震均)·박영관(朴永琯) 등이 주도했으며, 주체세력으로는 영해와 경주·상주·안동·영덕·영양·울진 등지의 교도들이 가담했다. 이곳은 일찍이 최제우가 접주를 두었던 곳이며, 최제우의 옥중 뒷바라지를 담당했던 지역이기도 했다.<sup>398</sup> 영해 지역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신분 상승을 꿈꾼 향전을 주도한 신향들이 다수였다. 그러므로 현실변혁을 지향한 몰락 지식인과 동학의 조직이 결합한 조직이 주도한 변란이다.

이필제는 1871년 최제우가 처형당한 3월 10일을 기해 변란을 일으켰다.<sup>399</sup> 영해 박영관의 집에 약 600여 명이 모여 소를 잡아 제물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필제를 중심으로 형제봉에 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이 자리에서 김진균은 축문을 읽었고, 최시형·강사원·박영관·전영규·전인철 등 주요 인물들은 별도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들은 별무사와 중군, 선봉을 정해 차첩(差貼)을 주었으며, 일반 평민은 홍(紅), 동학교도는 청(靑)으로 군호를 정하고 죽창과 조총으로 무장했다.

이필제 등은 유건을 사용하여 선비의 무리로 위장한 채 동헌을 공격했다. 군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한 후, 부사를 포박하여 그가 평소 자행하였던 부정부패를 문책했다. 일찍이 부사는 생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떡국 한 사발에 30금을 착취할 정도로 수탈이 악랄했다. 항거하는 부사를 김진균과 강사원 등이 칼로 쳐 죽이면서 인부(印符)를 빼앗았다. 난민들은 객사 건립을 위해 쌓아둔 목재는 물론 관아 담장에 불을 질렀다.

다음날 오후까지 영해부에 머물면서 변란의 계획을 정비하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다. 이들은 영해 읍민을 위무하는 격문을 내면서 동시에 탈취한 돈 140냥을 주민들에게 배분했다. 그러나 대다수 읍민은 갑작스러운 변란에 겁을 먹고 산으로 피신했고, 난민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덕·영양·평해 등지를 공격하고 곧장 서울로 향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중앙정부는 안동부사 박제관(朴齊寬)을 영해안핵사(寧海按覈使)로 임명하여 즉각 대응하게 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결과 일월산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박제관은 약 105명을 체포해 문초하였고, 일월산으로 퇴각한 난민은 약 30명 정도에 불과했다. 실패한 변란은 후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이필제의 난이 비록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울진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영해안핵사 박제관이 작성한 『교남공적(嶠南公蹟)』에 의하면 울진 거주자 3명, 평해 거주자 15명의 이름이 확인된다.<sup>400</sup> 이들 중 전서규·전윤조·전윤환·전한규·황윤구는 체

398. 울진군, 2001, 『울진군지』상, 395쪽

399. 김도형, 2017, 앞 책, 268~273쪽

400. 울진군, 2001, 앞 책, 397쪽

울진의 김귀철(역인)·남기환(유학)·남두병(유학)과 평해의 남시병(유학)·손경석(양인)·전서규·전세규(역인)·전영규(역인)·전윤조·전윤환(양인)·전인철(장교)·전정환(양인)·전제욱(역인)·전종이(동몽)·전한규·황학대(양인)·황윤구·황치작(유학)의 이름이 보인다.

포되지 않아 이들의 신분과 처벌 여부, 그리고 이후의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극형을 받은 인물이 모두 동학교인이었다는 점에서 동학교도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김귀철은 조사 중 물고(物故)되었고, 남기환, 전의철, 전정환, 황억대는 효수되었다. 황억대는 연환(鉛丸)을 소지하였고, 손경석은 봉화를 소지하고 선두에 섰기에 효수되었다. 한편 동학교도인 전영규는 음독하여 자진했고, 이 외는 모두 원악도로 정배되었다. 남시병과 황치작은 관찰사의 직권으로 경중 처리되어 화를 면했다,

울진 인물로 주목되는 자는 재추 후 물고된 남두병(南斗炳)일 것이다. 그는 울진 금매리 출신으로 호는 미촌(眉村)이며 남칠서(南七瑞)로 불리기도 했다.<sup>401</sup> 1871년 1월 이필제를 방문하여 모의에 가담하게 되는데,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이필제와 교제하면서 시국과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어 왔다. 그가 이필제 난에서 선봉장을 맡은 것도 모의과정이 오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반봉건과 반제국의 시대적 과제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조사한 안핵사가 이필제 다음으로 크게 사악한 인물로 평가했다.

한편으로 평해의 전(全)씨들이 집단으로 변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역속(驛屬)들이며, 일찍이 동학에 귀의하였다. 이들은 형제와 숙질, 조손(祖孫) 간 혈연을<sup>402</sup> 기반으로 규합하였고, 그 중심인물은 전영규였다. 전영규는 역인이면서도 양반인 영양남씨를 훈장으로 데려와 친자와 전인철 아들의 교육을 맡길 정도로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했다. 또한 그는 이필제 난 때 중군(中軍)을 맡아 영해부 공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전인철과 함께 죽창을 만들면서 변란을 대비하였고, 난이 실패하자 집으로 돌아와 약을 마시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sup>403</sup> 전인철도 별무사가 되어 영해부 장리(長吏)들에게 직접 칼을 휘두르면서 변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동학교도인 전동규(全東奎)와 전의철의 역할도 대단했다. 평해 출신인 전동규는 자신을 찾아온 최시형에게 변란을 준비한 지 오래되었다고 알림으로써 사전에 변란을 준비했음이 확실하다. 기성면 출신인 전의철은 교조 탄압 후 고향에서 잠복하면서 자신의 집 뒤뜰에서 철공 10여 명과 함께 창과 검, 중시 등을 제작하여 변란을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해에서 변란이 일어나자 그는 즉시 전립과 용복을 입고 동학교도인 500여 명을 인솔하여 평해읍을 공격하고 군수를 사로잡는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후 이필제와 남두병에게 합류하여 영해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경준이 이끄는 관군과 대치하여 접전을 벌였으나 끝내 패하고 단양으로 도피했으나 체포되었다. 그는 이해 6월 3일 대구에서 처형되었으나 시신을

401. 울진군, 1994, 『울진의 열』, 57쪽

402. 전세규는 전영규의 종제이고 전윤환은 전정환의 종제이다. 전인철은 전영규의 종제이고, 전정환은 전영규의 종손(從孫)이며 전제옥은 전영규의 종숙(從叔)이다. 그리고 전종이는 전제옥의 동생이며 황억대는 전영규와 친사돈 간이다. 이처럼 이들은 모두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울진군지』상(울진군, 2001), 397쪽의 표 참고.

403. 『嶠南公蹟』 137쪽; 울진군, 2001, 앞 책, 399쪽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필제의 난에 울진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울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영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감록이나 풍수지리사상 그리고 동학의 교리에 의한 민중들의 반봉건 의식의 성장이 울진 지역에도 팽배했다. 다수의 지주가 존재하면서 농민들이나 역졸들의 불만이 팽배했고, 이 가운데 전영규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반 남씨를 훈장으로 들일만큼 경제력을 확보한 평민들의 신분적 대립이나 갈등이 분명히 있었던 지역이다. 물론 조직화된 동학의 교단도 매우 단단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결국 울진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변란에 참여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 2. 갑오개혁기 울진 지역의 행정구역과 체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조선의 정부는 일본군의 철수와 이미 교정청(校正廳)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거절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력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군대를 동원 경복궁(景福宮)을 점령했다. 또한 대원군으로 하여금 권력을 장악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조직을 개편했다. 일종의 친일계통의 개화파 인사와 대원군계 일부가 주축이었다. 정부를 차지한 이들은 곧바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갑오개혁(甲午改革)을 추진했다.

군국기무처는 중앙관제는 물론 지방 관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sup>404</sup> 지방관제는 8도체제에서 결여된 통일성을 기하고, 군현 통합을 통해 근본적인 지방행정구역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지방관의 3권 박탈을 통한 지방관의 권한 약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근대적 관료체제를 지향하려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관의 상하체계 확립과 이를 통한 지방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한 정치상의 문란과 국가재정 확립으로 지방민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갑오농민전쟁을 통해 표출된 폐정개혁안의 수용과 함께 향촌사회의 불안요인을 해소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지방제도 개혁은 1894년 5월 23일 고종과의 면담에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가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오토리공사는 6월 1일 외무독판 조병직(趙秉稷)을 만나 구체적인 개혁방안과 내용을 협의했다. 이것은 지방사회의 효과적인 통제와 안정, 국가재정의 확보를 통한 지방제의 개혁을 지향했지만, 사실은 일제의 조선 침략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침략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404. 지방 관제 개혁에 관한 내용은 손정목, 1992,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 일지사; 윤정애, 1985, 「한말지방제도 개혁의 연구」 『역사학보』105, 역사학회 참고.

지방행정체제의 실제적 개편작업은 일 년이 지난 1895년 5월에 비로소 시행되었다. 이것은 내무대신 박영효(朴泳孝)가 주도하였으며, 칙령을 통해 주군(州郡)의 대소를 고려하여 일읍(一邑)의 수령이 여러 읍을 관할하게 하면서 지방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편 방향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 이로써 전국의 8도(道)를 해체하고 소구역주의를 채택해 23부(府)로 분화시켰다. 이로써 전국의 337개 군(郡)은 23개 부에 소속되었다. 또한 유수부(留守府)·부(府)·목(牧)·대도호부·도호부·군·현은 모두 군(郡)으로 읍격(邑格)을 통일시키고, 부에는 관찰사, 군에는 군수를 두어 행정사무를 총괄하게 한다는 기획이었다.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가 공포되면서 23부제가 시행되었다. 고려시대 현(縣)으로 강등되었던 울진은 이때 비로소 읍격(邑格)이 승격되어 울진군(蔚珍郡)이 되었다. 진임관(秦任官)으로 군수가 부임하면서 행정사무를 총괄했다. 울진군이라는 행정명은 이때부터 사용되었고,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울진군 관내 면(面)의 이름도 하현내면과 상현내면이 하군면과 상군면으로 개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울진군의 경우 종래에는 주로 촌리명(村里名)을 사용했으나, 이후부터는 촌리명이 동명(洞名)으로 변하였다. 그러면서 동명의 수는 확장되었다. 당시 울진군 행정영역은 하군면, 상군면, 근북면, 달북면, 근남면, 원남면, 서면 등 7개면으로 이루어졌다.

평해의 경우 종래부터 읍격이 군(郡)이었기 때문에 변동은 없었지만, 다만 하리면이 북하리면과 남하리면으로 분화되었다. 또한 평해군의 경우 종래 리명(里名)이 그대로 사용되어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리의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촌이었던 지역촌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행정촌으로 승격되고, 한편에서는 분화된 결과의 산물이었다.<sup>405</sup> 당시 평해군에 속한 행정구역은 현재의 평해읍과 온정면, 기성면, 후포면 등이 상리면, 북하리면, 남하리면, 남면, 군북면, 달북면, 근서면, 달서면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울진군은 평해군 북쪽의 한 군에 불과했으며, 현 행정구역의 1/2 정도의 규모였다. 그러나 이때 울진과 평해는 동일한 군의 위상으로 강원도 강릉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후 조선 정부는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의 지방제도 개정을 반포하여 23부제를 해체하고 1부(府) 13도제로 환원했다.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그대로 존속되었고, 외형적으로 울진과 평해도 변화가 없었다. 별개의 행정단위로 존재하던 울진군과 평해군이 현재의 울진군의 모습으로 행정구역과 체제를 갖춘 것은 1914년부터였다.

405. 울진군, 2001, 앞 책, 308쪽

### 3. 울진 지역의 의병운동

#### 1) 울진의병과 울진·평해 유진소(留鎭所)

청일(淸日)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통해 조선에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조선에서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또한 배상금과 함께 대만과 랴오둥반도를 할양받아 만주와 중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급격하게 세력을 확대하는 것에 위기를 느낀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에 일본의 랴오둥반도 점령이 동양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강조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삼국간섭을 단행했다. 이로써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반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조선도 이러한 정세에 편승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이어 일본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명성왕후는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도움을 받아 친일세력인 박영효 일당을 이범진(李範晉), 이완용(李完用)으로 교체하면서 친러·친미정권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배일 감정을 강화했다. 이에 일제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비상수단을 강구했다. 1896년 7월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공사가 새로 부임하여 정세를 관망했다. 미우라 고로는 10월 8일 일본의 낭인(浪人)과 군대를 동원하여 반일적인 태도를 보이던 명성왕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른바 을미사변(乙未事變)이며 이로 인해 조선 정부에서는 친러파가 퇴진하게 되었고,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내각이 수립되었다. 김홍집 내각은 명성왕후 시해로 혼란한 내정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해 11월 단발령(斷髮令)으로 대표되는 을미(乙未)개혁을 단행했다.

명성왕후 시해와 단발령은 국민감정과 유교적 명분이 결합되면서 재야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분노의 저항을 불러왔다. 전국의 봉건 유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하여 반일·반개화운동을 전개했다. 일본과 친일정부에 대한 무력적 항쟁은 을미사변 직후 충청도 보은에서 문석봉(文錫鳳)이 처음으로 기병하였으나,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1896년 전반기까지 친일 지방관을 처단하면서 정부의 진위대와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무기와 조직의 열세로 점점 세력이 약화되었고, 급기야 아관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직이 반포되자 자진하여 해산하였다.

울진 지역의 의병운동은 강릉의 민용호(閔龍鎬)부대<sup>406</sup>와 함께하였고, 농민과 포수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울진 지역과 동해안은 일본의 어업 침탈이 지속되었고, 이로써 일반 농어민의 반일의식은 높은 편이었다. 일본의 보호를 받는 일본 어민들의 어로행위가 활발해졌고, 이들은 선진적인 어로기술과 시설을 내세우면서 조선의 어민들을 위협했다. 특히 기

406. 이상찬, 1997, 「1896년 의병장 閔用鎬의 실체(實體)」『규장각』20, 규장각한국학연구소 ; 박민영, 1991, 「민용호의 강릉의병 항전에 관한 연구」『한국민족운동사연구』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계화된 어로 기법 특히 근대적인 잠수기를 이용한 미역과 전복, 해삼 등의 채취는 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주민들의 반일감정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고, 급기야 울진 죽변에 들어온 일본 상인 15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sup>407</sup>

원주에서 거의(擧義)한 민용호는 강릉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의병을 모집했다. 울진 지역에 의병을 모집하러 온 소모사는 이경환과 김윤희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울진 지역의 많은 사람이 강릉의병에 참여하였다. 치열한 의병전쟁을 이끌던 민용호 부대는 원산공략을 위해 북진하다가 패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력이 약화되면서 울진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울진 지역민들은 자발적으로 민용호 의병부대에 인적, 물적 기반을 제공했고, 새롭게 복상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민용호 의병진은 이해 8월 의진의 복상을 알리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울진을 출발해 북쪽으로 진격했다. 북진하는 동안 관군의 집요한 추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10월 5일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고, 백두산 아래에서는 의병을 해산했다.<sup>408</sup> 이때 춘천의병의 별동대로 활약하던 성익현이 민용호의 강릉의병과 연합하여 활동하였고, 후일 성익현은 울진을 중심으로 의병을 재기했다.

한편 울진과 평해 지역에는 민용호 의병과 보조를 같이하는 의병유진소(義兵留鎭所))가 설치되었다.<sup>409</sup> 1896년에 설치된 울진유진소 설치에 참여한 자는 주병헌·전치일·이성인·장병하·최재인·박춘근 등이었고, 이들은 주병헌(朱秉憲)을 유진장으로 추대하였다. 1896년 1월 5일(음력) 경무기를 휴대한 왜선 5척이 지방관헌에 통보 없이 죽변에 나타났다. 울진 지역민들은 긴장하였고, 해삼잡이를 가장하여 국정을 염탐하러 온 자들로 이해했다. 이에 울진 유진소의 중군장 최재인은 포군 50명을 거느리고 죽변항 죽림 속에 은폐하다가 왜선 3척에 총격을 가하여 격파하고, 일본인 31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런데 왜인 1명이 탈출하여 부산으로 도주했다. 그는 부산에 주재하던 일본군 함장에 실상을 보고하였다. 이에 격분한 일본 해군 1지대는 1월 30일 군함 1척을 이끌고 죽변항을 봉쇄하고 함포를 발사하면서 일부는 상륙을 감행하였다. 함포 소리에 놀란 주민들은 산으로 피신하였고, 후당동에서 전복기, 주계조, 전정기, 강극막, 전연심, 전영식 등 6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후 이들을 인질로 삼아 수많은 울진주민을 무참하게 사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질들조차 처형하고 사체를 군함에 싣고 돌아갔다. 물론 죽변항에 상륙하려던 일본인 15명도 살해되었다. 일본공사는 이 일을 들어 조선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407. 『舊韓末外交文書』, 일안(日案)3.#3988 : 울진군, 2001, 앞 책, 403쪽

408. 울진군, 2001, 위 책, 404쪽 ; 김도형, 2017, 앞 책, 287쪽

409. 김도형, 2017, 위 책, 281~284쪽

평해의 유진소는 향인인 장필환을 유진장으로 하여 막료 황경희, 안위, 정수 등이 조직했다. 그런데 평해유진소는 설치 초기부터 향인과 아전 사이에 주도권 문제를 둘러싼 알력이 심했다. 이 과정에서 아전들은 불참하면서 견제했고, 결국 향인만으로 조직하였다. 이들은 울진유전소의 항쟁과 때를 같이 해 후포항에 잠입하던 일본 선원 8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평해의 아전(衙前)들은 유진소가 학정(虐政)하였다고 경무사 이상준에게 고발했다. 경무사는 위무와 치안을 명분으로 유진장 등 3명을 사형에 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울진과 평해의 유진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울진사람들은 이 사건을 울진의 ‘병신년 왜란(倭亂)’으로도 기억하고 있다.<sup>410</sup>

## 2) 울진 지역 의병 활동의 양상

유생의병장을 중심으로 한 의병항쟁은 갑오정권의 붕괴와 함께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904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을 계기로 의병항쟁이 재기(再起)되었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국권 회복을 명분으로 한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다. 물론 일제의 침략정책으로 극심한 피해를 경험한 농민과 어민들의 반일의식이 강렬했고, 여기에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된 분위기가 반영되었다. 특히 울진 지역의 연안은 러일전쟁의 전장(戰場)이 되어 위기감이 한층 높았다.

1905년 5월 28일 울진의 고포(姑浦) 앞바다에서 일본 군함 2척과 러시아 군함 1척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모두 산으로 피난했고, 피난 도중에 파도에 밀려온 수뢰포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상하게 생긴 물건에 호기심을 느낀 주민 간에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일어났다. 옥신각신하는 도중에 갑자기 수뢰포가 폭발하여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sup>411</sup> 참화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일본군인 10여 명은 근남면과 근북면 해안가 수십 군데에 횃가루로 표시하고 깃발을 세웠다. 그리고 이것을 뽑는 자는 일본의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들은 “이 땅이 우리 땅이니 너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sup>412</sup> 그리고 근북면 죽변의 망루에 머물던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나타나 자기들이 매득하였다고 차지하였다.<sup>413</sup> 여기에 일본의 어업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형성된 울진 지역민들의 반일의식은 자연스럽게 의병항쟁과 연결되었다, 울진 지역의 의병 활동은 영해를 중심으로 일어난 신돌석부대의 활동과 연관되었다.

410. 울진군, 1994, 앞 책, 60쪽; 울진군, 2001, 앞 책, 298쪽, 404~405쪽

411. 『황성신문』 1905년 6월 15일 「울진참보(蔚珍慘報)」

412. 『황성신문』 1905년 6월 21일 「울진군보」

413. 『대한매일신보』 1906년 2월 24일 「망루매득(望樓買得)」

평민의병장인 신돌석은 1906년 4월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다.<sup>414</sup> 신돌석 의병부대의 활동영역은 광범위하여 영해와 영양, 평해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와 경상도는 물론 충청북도 일부를 포함하였다. 신돌석부대는 행정관아와 친일적 개화파 관리들을 주로 공격했으며, 초기에 울진을 공격대상으로 삼았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

1906년 4월 영양군 동북부 지역에 머물면서 군수품을 준비하고 울진군의 정세를 염탐했으나 4월 26일 원주진위대의 공격을 받아 진보의 접경지대까지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속출하였고, 군사의 수도 80명으로 줄어들었다. 신돌석이 다시 울진 공격을 결정한 것은 6월 초순이었다. 300명 규모의 신돌석부대는 울진군 읍내로 진입하여 군아(郡衙)와 무기고를 습격하고 군기를 획득했다. 이때 신돌석부대의 근거지는 영양의 일월산이었다.

신돌석 부대는 1907년 1월 초 300~400명 규모의 의진으로 울진군을 습격하였다.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여 공전 1,800냥을 탈취하였고, 건물과 우편물을 파괴하고 소각하였다. 산에 올라서는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관아에 들어가서는 군수 윤영태(尹榮台)를 포박하고 죄를 묻기도 했다. 이에 통감부는 1907년 7월부터 일본군과 헌병을 증강하여 철저한 의병탄압에 나섰다. 울진의 경우 강원도 경무소 산하 울진분서가 설치되었고, 울진분서는 평해분파소와 삼척분파소를 두었다. 울진분서에는 18명의 경찰이 배치되었고, 평해분파소에는 4명이 주둔하면서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울진 지역의 의병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07년 11월 전국의 의병들이 연합작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신돌석부대는 이강년(李康年)부대와 연합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신돌석은 강렬한 일본군의 토벌에 밀려 평해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산간을 근거지로 삼아 소규모의 게릴라 전법을 썼다. 평해군 선미동에 주둔한 신돌석부대의 규모는 약 300명 정도였다. 신돌석은 의병부대의 유지를 위해 각 동네로부터 금전을 징수하고, 납(鉛)을 징발하였다. 여기에는 3~4명, 혹은 30~40명의 조별 활동이 있었고, 평해읍내의 경우는 천 냥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면포 20관문을 탈취할 정도로 의병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였다.

1907년 12월 하순 신돌석은 전국연합의병부대의 교남창의대장이 되어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북상하다가, 1908년 1월 10일 영양군으로 회군했다. 영양군 북면에 이르렀을 때 안동수비대의 습격을 받아, 많은 전사자가 발생해 전력은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이후 철저하게 게릴라 전법의 투쟁으로 전환한 신돌석은 영해와 평해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영양과 진보, 울진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3월 11일에는 12명의 부대원만 대리고 평해군 남면 만산동에 진입하여 동금(洞金) 20원을 가져갔고, 4월 6일에는 약 60명의 의병이 평해군 원서면 상조

414. 김희곤, 2001, 『신돌석』·백년만의 귀향, 푸른역사; 울진 지역에서의 신돌석 의병부대의 활약은 ‘울진군, 2001, 앞 책, 407~415쪽’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고, 주석의 일부를 재인용하였다.

금동에 와서 80원을 거두어갔다. 이후 신돌석부대는 평해 주변에 머물렀다.<sup>415</sup>

이해 5월 초 평해 주민들에게 400냥을 거두어 의복비를 지불하였고, 이후 원서면 일대에 자주 출현했다. 내선미동[5월 13일], 온정동[6월 3일], 상조금동[6월 11일]을 거쳐 6월 26일 울진의 상죽전으로 이동했다. 이때는 대구순사대의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지방행정기구에 대한 공격보다는 주로 지역 내 대부호가나 양반들이 주 공격의 목표였다. 그러나 의병운동이 지속되면서 총기와 화약은 물론 사기도 많이 저하되었고, 병력도 20명 정도만 남아 겨우 명맥이 유지될 정도로 열악했다. 결국 10월 17일 울진군 서남쪽 약 60리 지점에서 울진분견소 헌병대와 마지막 전투를 벌인 이후 11월 중순경 해산하였다.<sup>416</sup>

한편 울진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한 인물로 성익현(成益賢)과 정경태(鄭敬泰)를 들 수 있다.<sup>417</sup> 성익현은 춘천부 관군의 초장(哨長)이었으나 1896년 1월에 의거한 이소응의 춘천의병에 합류하면서 핵심인물이 되었다. 춘천의병이 무너지자 성익현은 잔여 부하 500명을 거느리고 강릉의 민용호 의병부대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이후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에서 민용호 의병부대 정신을 계승한 ‘관동창의대장’을 칭하면서 항쟁을 지속했다. 성익현 의병부대는 강원도 산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게릴라식 전투로 일본군의 토벌을 피했다.

당시 울진에서는 소규모의 의병부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성익현은 정경태와 이상렬, 변학기 등의 의진을 규합하고, 정경태를 도총장(都總將), 이상렬을 부장으로 삼아 평해, 울진 지역의 분파소를 습격하고 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1907년 9월 2일 성익현은 정경태, 이상렬과 함께 평해군 읍내를 공략하였고, 경무분파소를 습격하여 분파소를 파괴하고, 일본 순경 3명과 교전하여 물리쳤다. 이 전투에서 권총 2정, 도검 2자루와 의류 수점 및 공문서를 탈취했다. 그리고 울진군 읍내에 침입하여 울진군청 군기고에 있던 화승총 25정과 활, 화살 등을 빼앗는 전과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의병들의 무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sup>418</sup>

성익현 부대는 평해읍 습격 후 평해 지역에서 군자금 및 군수품 마련에 주력했다.<sup>419</sup> 이때 민근호는 해산군인 80명을 거느리고 울진 읍내로 와서 경무분견소를 습격하였다. 2시간 동안이 지속된 전투에서 일본 순사부장 염원영태랑(鹽原英太郎)은 의병의 총에 죽었고, 순사 최석기는 관통상을 입었다. 1907년 9월 5일의 일이었다.

415. 김도형, 2017, 앞 책, 287~291쪽

416. 『황성신문』 1906년 6월 15일 「울진비도(蔚珍匪徒)」; 1907년 1월 14일, 「울진의병(蔚珍義兵)」; 1월 15일 「훈습적비(訓櫟賊匪)」; 1월 17일 「공전피탈(公錢被奪)」; 『대한매일신보』 1907년 1월 11일 「의도박수(義徒縛守)」: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독립운동사』1-의병항쟁사, 362-36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3-의병항쟁사자료집, 613쪽

417. 울진군, 2001, 앞 책, 411~415쪽; 김도형, 2017, 앞 책, 292~299쪽

4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집』1-의병항쟁재판기록, 269-271쪽

419. 성익현은 10월 12일 270명의 부하와 함께 평해 군아를 습격하여 400원, 상리면 상성저동에서는 말 2필을 획득하였다. 10월 18일에는 평해군 원북면 천산동에서 말 1필과 674원을 확보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앞 책, 612쪽

이후 성익현 의병부대는 다시 10월 18일을 기해 울진읍을 공격했고, 평해는 신돌석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이때 성익현의 부대는 정경태 등 약 500명으로 구성되었고, 경무분견소도 습격하였다. 분견소의 구미(久米) 경무 이하 9명 및 순검 2명이 저항하였고, 교전은 8시간이나 지속되었다. 의병들은 일본인 마을을 방화하여 민가 36동을 소각했고, 분견소의 재물을 빼앗았다. 이때 성익현은 이강년 부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10월 22일 성익현 부대는 재차 울진 읍내로 진격하여 군아(郡衙) 정청(正廳) 1동과 부속 가옥 35동을 소각했다.

울진과 평해를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두드러지자 일본군은 토벌에 적극성을 보였다. 일본은 수비대를 삼척에 상륙시켜 울진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해로를 통해 울진에 병력을 파견했다. 일본군의 본격적인 진압은 1907년 12월에 이루어졌다. 대구토벌대인 적사토벌대가 수십 차례 토벌한 결과 울진 지역의 의병들은 큰 타격을 입고 점차 그 활동이 위축되었다. 통감부는 삼척 중대의 1개 소대를 울진에 주둔시켜 강력하게 의병진압에 나섰다. 결국 겨울의 추운 날씨와 겹치면서 성익현 부대는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12월 말경 그는 부하 약 300명을 양총 8정과 화승총 200정으로 무장시키고, 울진의 산간에 둔취(屯聚)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울진과 평해 지역에 출몰하면서 일본군과 헌병, 경찰과 접전을 벌였다. 강력한 일본군의 토벌로 인해 의병들은 위축의 단계를 넘어 귀순하는 일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성익현은 당규를 만들어 여기는 자는 가차 없이 총살하면서 군기를 다잡기도 했으나 원천적으로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성익현은 1908년 5월 중순 병력 500명을 거느리고 이강년 부대에 참가하여 안동의 서벽과 재산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이후 이강년 부대가 해산되면서 성익현은 북간도로 떠났다.<sup>420</sup>

이후 성익현 부대의 도총장이었던 정경태(鄭敬泰)가 의병진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미 의병활동은 약화되었고, 30~40명 정도의 의병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정경태가 일본군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유격전뿐이어서 점차 힘들어졌다. 정경태는 강한 의병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반의병(反義兵) 활동을 경계했다. 귀순자와 밀정을 경고하기 위해 1908년 6월 8일 평해군 원서면 중소태동(中蘇台洞) 동장, 6월 27일에는 근북동 다천동의 동장을 납치하여 분위기를 일소하려 했다. 이러한 정경태 의병활동은 한일병합 직전까지 지속되었다.<sup>421</sup>

1906년 이후 울진과 평해는 의병항쟁의 중심지였으며, 대다수 지역민이 의병부대에 참여하거나 연관되었다. 이들은 주로 신돌석, 성익현, 정경태 부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였다. 울진에서는 일찍이 독자적인 거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905년 12월 7일 울진의 전세

4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위 책, 611쪽, 61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앞 책, 692~695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8-임시정부사자료집, 311쪽, 363~364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앞 책, 269~271쪽

421. 정경태는 1910년 3월 6일 토벌군에게 의병의 정보를 제공한 울진군 서면 봉전동 면장 장두의를 처형하고, 의병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한 울진군 서면 삼근동 노유민도 처형하였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의병시체의 목을 벤 울진군 원북면 상원당동 찬옥을 처형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앞 책, 269~271쪽).



호·전매정·주낙조·최경호·김용욱·장진수·전배근·박병률 등이 흥부시장에 모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조직한 사람은 이강년 휘하의 김현규(金顯圭)였다. 그는 강원도 남부 일대 각 군을 돌면서 의병의 필요성을 유세하였고, 1906년 2월에 울진에 왔다. 울진의 거병 논의를 듣고 인근 지역의 군사를 불러 모았다. 삼척의 김하규와 강릉의 황청일이 이에 호응하여 20여 명의 포군을 거느리고 합세했다. 여기에 공주인 윤용택과 봉화인 권용하가 참가하면서 의병진을 편성하고 김현규를 의병대장으로 삼았다.

불영사에 임시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사훈련과 동시에 울진과 평해의 관포(官砲), 군사와 무기 등을 모집했다. 인근의 의병과 포군이 합세하여 500여 명의 규모가 되었다. 그러나 의병진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아장 주낙조가 김현규를 살해하면서 악화되었다.<sup>422</sup> 그러나 1906년 3월에 참모 이하현이 수병 50명을 거느리고 매화리에서 야간에 구보로 죽변 일본 해군 망대를 기습하여 망대를 격파하고 수비병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울진 인사로 신돌석부대에 참여한 자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전세호·김용욱·최경호·전배근·장석태·이하현·유시연·장진수 등이며, 이들은 각 전투에서 공적이 탁월했다.<sup>423</sup> 반면에 의병 활동에 참여하였다가 귀순한 자들도 많았다. 그렇다고 이들이 항일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의병 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울진 지역은 의병 전쟁이 치열해 지면서 행정의 마비와 관아와 가옥의 파괴가 이어지면서 혼란을 겪었고, 부호들은 피난을 떠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울진 지역민들은 의병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항일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의병과 일본군 사이의 전투가 치열해 지면서, 특히 토벌을 빌미로 일본군의 만행이 저질러지면서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었다. 의병의 습격으로 군청과 경무소 등의 건물과 다수의 민가가 부서졌다.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울진 지역의 의병운동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보여준다.

#### 4. 애국계몽운동과 울진의 근대교육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개화파의 명맥을 잇고 있던 계몽운동가들이 1904년부터 대중을 상대로 계몽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전직 관료와 개명유학자, 신진 지식인들이 중심이었으며,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해 당장 독립보다는 국민의 문명화 및 실력양성이 필요하

422. 주낙조는 아장으로서 군량미를 부당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벌을 조작하여 통수체계를 물란하게 하고 주민들을 괴롭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조사결과 군량미 유출됨이 드러나자 의병대장 김현규는 그를 처형하기로 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주낙조는 옥문지기 최인석을 매수하여 담배대를 물고 있던 김현규를 저격했다. 이후 주낙조는 스스로 대장이 되어 일제 장수에게 아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다(울진군, 2001, 앞 책, 302쪽).

423. 울진 출신 인사들의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울진군지』상(울진군, 2001), 415~421쪽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국권을 회복하려면 우선 국민이 국가 정신, 애국심을 가지고 자강 문명화해야 한다며 교육 진흥에 노력하였고, 동시에 일제의 경제침탈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계몽운동은 근대학교와 학회의 설립, 언론 활동으로 대중의 지식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지역의 상공인과 지식인들은 국채보상운동 및 민족자본을 바탕으로 한 민족경제 회복을 위한 회사설립과 운영에도 적극적이었다.

울진과 평해 지역의 경우 근대학교의 설립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sup>424</sup> 1907년 10월 주진수(朱鎭洙)는 매화 만흥학교(梅花晩興學校)<sup>425</sup>를 설립했다. 황만영(黃萬英)은 주진수와 협의하여 사동(沙洞)에 대흥학교(大興學校)를 설립했다. 두 학교는 당시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정인숙, 기태진, 남정섭, 박예철을 초빙하여 강의하게 하여 울진 지역에서 최초로 근대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지방의 인재양성과 함께 신문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한편 1908년 울진향교에 명동학교(明東學校), 1909년 평해향교에 평명학교(平明學校)가 개교되었다. 그러나 곧 일본인 교장을 둔 공립보통학교로 개편되었다. 이후 주진수와 황만영은 신민회를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운동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결국 독립군 기지 건설에 동참하여 가산을 정리하면서 이주를 준비했다. 이후 1910년 한일병합과 동시에 울진의 학교들은 폐교되었다. 이해 12월 황만영이, 이듬해인 1911년 1월 주진수가 서간도로 떠나면서 울진에서 근대교육의 역량은 약화되었다.

한편 1911년 지방 유지들이 기성면에 정명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이어갔으나 결국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폐지되었다. 이후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각 지역의 유지들은 독자적으로 강습소와 학원을 설립을 주도했다.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전근대적인 사상을 타파하기 위한 근대교육 시행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울진에서도 제동학교(濟東學校)를 설립하고,<sup>426</sup> 진근익을 교장으로 초빙해 학교운동을 책임지게 했다. 그러나 학교가 배일사상을 기르는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태평양전쟁’ 이후 강제로 폐교되었다.

김병우

424. 김도형, 2017, 앞 책, 302~305쪽

425. 만흥학교의 발기와 설립에 참여한 사람은 남상정·주병웅·곽종욱·전오규·최정순·진규환·전주석·남재철·장식 등이다.

426. 제동학교의 설립에 참여한 인사의 명단은 『울진군지』(울진군, 2001), 305쪽에 자세하다.